



프로농구 '봄 잔치' 최후 승자는?

내일 플레이오프 개막... 4위 오리온 vs 5위 전자랜드 인삼공사 설린저 - kt 허훈 자존심 대결 관심 집중

프로농구 '봄의 잔치'로 불리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이 10일 막을 올린다.

2020-2021시즌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는 10일 4위 고양 오리온과 5위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로 막을 올리며 이후 4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는 21일에 시작한다. 또 7전 4승제로 펼쳐지는 대망의 챔피언결정전은 5월 3일 시작해 최종 7차전까지 갈 경우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다.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6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저마다 플레이오프 승리와 함께 우승컵에 입 맞추는 순간을 밝혔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전주 KCC 전창진 감독은 "오랜만에 하는 플레이오프라 긴장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이라며 "먼저 6강에서 맞붙는 오리온과 전자랜드가 꼭 5차전까지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 역대 최다 수상 기록(6회)을 세운 전창진 감독이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것은 부산 kt 사령탑 시절인 2013-2014시즌 이후 이번이 7년 만이다.

정규리그 2위 울산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 역시 "시즌 전 목표는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잘 적응하고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이었다"며 "하다 보니 2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래서 사실 욕심이 좀 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감독은 지금까지 챔피언결정전에서 6번이나 정상에 올라 올해 우승하면 7번째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 두 팀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6강 플레이오프는 오리온-전자랜드, 3위 안양 KGC인삼공사-6위 kt의 대결로 펼쳐진다.

오리온에서는 이승현, 전자랜드는 정효근, 정영삼, 이대현 등이 부상 중이라 승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삼공사와 kt 대결은 3월부터 팀에 합류해 인삼공사의 상승세를 주도한 제러드 설린저와 kt의 에이스 허훈의 '자존심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인삼공사와 kt는 3위와 6위 대결이지만 정규리그 6차례 맞대결을 3승 3패로 끝냈고 그 중 연장전을 네 번이나 치르는 등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티샷 날리는 정지유 8일 제주 서귀포 롯데스카이힐제주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021년 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1R 2번 홀에서 정지유가 티샷하고 있다. 이날 강한 뒤바람으로 300야드를 훌쩍 넘는 초장타가 잇따라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K리그1 현대家 승점 불꽃 경쟁 뜨겁다

10일 전북 9경기 무패 도전 갈길 바쁜 울산 뒤집기 나서 7일 제주 vs 강원 1-1 무승부



가슴에 동백꽃을 달고 출전한 제주Utd 김봉수.

프로축구 K리그1 5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가 개막 9경기 연속 무패를 노리는 가운데 선두 추격에 발걸음이 바쁜 울산 현대도 '판세 뒤집기'에 도전한다.

6-7일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8라운드에서 '2강'으로 손꼽히는 전북(승점 20·17득점)과 울산(승점 17·15득점)은 각각 포항 스틸러스(3-1승)와 FC서울(3-2승)을 꺾고 1,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 시즌 K리그1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전북과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울산의 '현대家' 승점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전북과 울산은 5라운드까지 나란히 3승 2무로 박빙의 승점 경쟁을 펼치다가 6라운드에서 울산이 대구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8라운드까지 전북은 개막 8경기 무패(6승 2무)를 내달린 가운데 울산은 5승 2무1패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불꽃 경쟁'을 펼치는 전북과 울산은 오는 11일 각각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7)와 12위 수원FC(승점 6)를 만난다. 9라운드 인천전을 앞둔 전북의 목표는 개막 9경기 연속 무패다.

전북이 개막 8경기 연속 무패를 했던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전북은 2016년에 무려 개막 33경기 연속 무패(18승 15무)로 역대 K리그 통산 최다 무패 행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어게인 2016년'을 꿈꾸는 전북의 최고 무기는 '이적생 골잡이' 일류첸코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맹활약하다

올해 전북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일류첸코는 4라운드에 '전북 데뷔골'을 신호탄으로 5경기 연속골(7골)에 성공하며 득점 선두를 내달리고 있다.

개막 8경기에서 1패만 당한 울산은 일류첸코 같은 '폭격기'는 없지만 2골 이상 터트린 선수가 4명이나 될 정도로 든든한 '소총 부대'가 장점이다.

부산 아이파크를 떠나 울산 유니폼을 입은 이동준이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2년차' 김민준과 김인성(이상 3골)이 나란히 3골을 터트렸고, 공격 조율의 핵심인 윤빛가람이 2골로 뒤를 받치고 있다.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제주 Utd와 강원FC가 1-1로 비겼다.

이날 제주 선수들은 제주 4·3을 추모하기 위해 동백꽃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제주는 후반 8분 주민규가 선제골을 넣었고,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묵념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후 강원이 후반 17분 김대원의 시즌 3호 골로 균형을 맞췄고, 똑같이 승점 1씩 나눠 가지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1승 5무 뒤 7라운드에서 수원FC에 저 시즌 첫 패배를 당했던

제주는 최근 5경기 무승(4무 1패)을 이어갔다.

가장의 무게... 무거운 류현진 어깨

텍사스전 7이닝 2실점 호투 MLB 통산 60승 달성은 무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에이스의 역할을 다했지만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첫 패전을 안았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맞고 2실점 했다.

정확히 90구를 던진 류현진은 볼넷 없이 삼진은 7개를 잡아냈다. 포심패스트볼 최고 시속은 92.1마일(약 148km)을 찍었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38에서 2.92로 낮췄다.

개막전에서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상대로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승패 없이 물러난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에서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2경기 연속 실점을 2점으로 막았으나 이번에도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토론토 타선이 겨우 1점을 내는 데 그치며 류현진은 시즌 첫 패전을 당했다. 토론토는 텍사스에 1-2로 패했다.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작년까

지 통산 59승 35패를 거둔 류현진은 60승 고지 등정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1회말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2회말 포수 대니 켄슨이 요구한 몸쪽 공이 가운데로 물리며 닉 솔라에 게 시즌 2번째 피홈런을 허용했다.

류현진은 후속타자 네이트 로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지만 호세 트레비노에게 내야안타를 내줬다.

깊숙한 타구를 유격수 마커스 시미언이 잘 건져냈으나 길게 던진 송구를 1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포구하는 데 실패했다.

류현진은 계속된 2사 2루에서 레오 디 타베라스의 먹힌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면서 또 1점을 허용했다. 찰리 컵버슨의 중전 안타로 2사 1, 3루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카이너-팔라파를 유격수 직선타로 잡아내고 추가 실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3회말 안정을 되찾았다.

류현진은 7회말 무사 1, 2루의 위기 상황도 잘 이겨내며 1-2로 뒤진 8회말 마운드를 팀 마이자에게 넘기고 교체됐다.

토론토는 9회초 2사에서 조 패닉의 안타로 마지막 불씨를 살렸으나 대타 라우디텔레스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1점 차 패배를 당했다.

PSG, UCL 4강 청신호 해결사 음바페 멀티골

디펜딩 챔피언 뮌헨 3-2 격파

'프랑스 강호' 파리 생제르맹(PSG)이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한발 다가섰다.

PSG는 8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멀티골과 마르퀴누스의 득점포를 앞세워 3-2로 이겼다.

PSG는 선제골을 터트려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전반 3분 네이마르가 오른쪽으로 살짝 내준 공을 음바페가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차 넣었다.

전반 28분에는 뮌헨이 역습에 나서려는 찰나, 공을 잡은 네이마르가 뒤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마르퀴누스가 이를 골로 연결해 2-0으로 앞섰다.

고전하던 뮌헨도 추포모팅, 토마스 뮐러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 23분 페널티 지역에서 쇄도한 PSG 음바페가 상대 수비 사이로 오른발 슈트를 시도해 결승골을 작성했다.

뮌헨은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했고, 슈팅 개수 역시 크게 앞섰지만 패배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